

전북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기업 지원 속도

새만금청, 산업용지 확대부터 규제 개혁까지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추진

지난 7월 1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기업이 경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 구축 △근로·정주 여건 개선,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 완화 등의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용지를 확대하고, 제2국가산단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3·7·8 공구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2025년 초



부터 기업에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용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산단을 신속히 개발하고,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을 하늘·바다·땅으로 연결하는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와 지역간 연결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과 전력·용수공급시설도

조속히 구축한다.

지난해 7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전면 개통으로 교통·물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에서 나아가, 새만금 내부의 핵심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간 연결도로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5만톤급 선박과 대형 크루즈선의 접안이 가능한 신항만(2026년 2선석 우선 개항), 국제선이 운항되는 국제공항 물자를 운송하고 도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철도까지 트라이포트를 완성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전과 협의회 전력공급시설 완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추진하며, 대규모 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공급 공동관로를 내년에 완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근로자의 근무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세제 혜택 등 새만금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에 법인세 감면(3년100%+2년50%)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등의 혜택을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이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혁파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계기로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기업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하여 새만금은 황금기를 맞이하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은 용진농협과 함께 지난 2일 범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과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밥상머리의 美學을 주제로 용진농협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밥버거'로 든든하게 채우세요

전북농협, '밥상머리 미학' 체험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용진농협(조합장 이종진)과 함께 지난 2일 범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과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밥상머리의 美學(미학)을 주제로 용진농협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일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이정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이종진 용진농협 조합장,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동원, 직장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폭락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범 농협 차원의 전사적인 소비촉진 운동 일환으로 용진농협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유통센터에서 '밥버거 만들기'와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밥상머리의 미학' 체험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전 국민 매일 아침밥 먹기 운동 실천과 탄수화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진 조합장은 "현대의인 생활 변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쌀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용진농협 로컬푸드 유통센터에서 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아침밥을 챙겨먹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전 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지속적인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쌀가공품 개발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젊은 공무원들

민간기업 찾아 조직혁신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2일 민간 우수 혁신기업(LG전자)을 방문 견학했다.

새만금청 내 혁신그룹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이하 뉴웨이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견학에는 기획조정관과 뉴웨이브 회원 등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직원들은 민간기업의 수평적 조직문화와 유연한 업무 분위기를 현장에서 견학하고,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행동 원칙과 부서 및 상·하급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 창구 운영 사례 등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활발하게 토론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식사회 인력의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면서 "민간의 우수한 조직혁신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더 나은 새만금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농촌진흥청, '청년인턴 한국 농업기술 전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통해 11개국에 연구원·연수생 파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제적인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농업 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연구원) 4명과 연수생 12명 포함 총 16명'을 선발해 8월 1일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1개 개발도상국에 파견하고, 국제 협력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연구원)과 연수생은 파견기간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에 참여해 현지 농업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

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파견한 청년인턴(연구원)은 농과계열 전문학사 이상 자격을 갖추고, 파견 기간은 1~2년이다. 연수생들은 농과계열 대학 재학생으로, 6개월 동안 현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파견에 앞서 정부 개발협력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이해, 협력사업 업무 및 행정 지원 능력 향상 등 현지 적응 사전교육을 마련하고 현지 업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 9명(연구원 6명, 연수생 3명)을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에 16명을

추가 파견한 농촌진흥청은 청년들의 국제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를 넓히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2019~2022년) 국제적인 재양성사업에 참여한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취업률이 70.7%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 인재 양성사업이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국외농업기술과 유은하 과장은 "농과계열 대학 재학·졸업 청년들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LX-LH, 보상업무 효율성 강화 '맞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LH)의 보상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과 공간정보기술의 협력을 강화한다.

LX 어명소 사장과 LH 이한준 사장은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국토개발사업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건설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국책 사업의 성공



LX 어명소 사장(왼쪽에서 세번째)과 LH 이한준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은 지난 2일 LH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주택·토지건설사업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LX는 지적측량·드론영상 등 기술력을 활용하여 토지 보상업무를 신속히 해결해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LX의 지적정보가 전산화되면 보상대상자가 토지 경계와 보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토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하반기 10명 채용... 100% 지역인재 선발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약자 채용에도 앞장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에서 2024년 하반기 신규직원 10명 전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

이번 채용규모는 일반직 9명(일반행정 4, 토목 2, 회계 1, 건축 1, 건축설비 1), 기간제 1명(행정지원)으로 총 10명이다.

또한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약자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채용에서도 일반행정 4명 중 2명을 장애인과 국가보훈취업지원대상자로 채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업 블라인드 채용 정보 공유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원서접수 마감결과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일반행정 분야 경쟁률은 90대 1로 가장 높았다.

공사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3일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여 9월중 임용할 예정이다.

공사 최정호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도정의 핵심과제인 안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청년층 직무 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연내 체험형 청년인턴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